

# “인재사고 더 이상 반복돼선 안돼”

## 송재빈 북부소방서 임동119안전센터장

###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발간 국내·외 사례 통해 국가별 재난 대처 비교

“인재로 인한 대형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펜을 들었습니다.”

광주 소방대원이 국내에서 반복되는 주요 대형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책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송재빈 광주 북부소방서 임동 119안전센터장(55·소방경)이다.

송 센터장은 최근 소방관의 시각으로 사고현장을 보고 분석해 서술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를 편찬했

다.

송 센터장은 “가장 가까워서 재난 현장을 지켜보는 소방관으로서 더 이상 후진국형 재난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담아 국내외 굵직한 재난 및 사건 사고들을 정리했다”면서 “성공 사례든 실패 사례든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책 출간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책은 세월호 참사와 남영호 침몰, 씨편



드 화재, 삼풍백화점 붕괴 등 국내에서 일어난 대형 재난 사고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모아 국가별 사후 대처 능력을 비교할 수 있게 했다.



당시대형사고 원인과 구조대원의수습 과정을자세히 기록했다. 허술하고안이하게 대응한 점을 꼬집기도 했다.

아울러 책속에 재난 후진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국가와 국민, 공직자가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제안을 담았다.

송 센터장은 “같은 공직자로서 공직사회를 비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면서도 “후대에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재난 현장의 구조 성공사례든 실패사례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 광주은행 에너지빈곤가정 후원

광주은행은 11일 북구 지아동에 위치한 조순가정 등 대상으로 에너지 빈곤가정 후원행사를 가졌다.



### 남부소방서 펌블런스대원 특별교육

광주 남부소방서는 11일 남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펌블런스(Pumbulance)대원 30명을 대상으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펌블런스란 소방펌프차(Pump)와 구급차(Ambulance)를 합성한 용어로 구급현장에 두 차량을 동시에 출동시켜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거나, 구급차가 출동하고 공백이 생길 때 소방펌프차가 출동해 구급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 “보호 필요한 아이들 학습기회 제공”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방임아동보호서비스 등 지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일 2019년 ‘북권기금 야간보호사업’ 일환으로 저소득아동을 위해 11억 5,9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지원된 지원금은 북권기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아이들의 방과 후 기초학습 지도, 문화활동 체험, 방임아동 보호서비스, 야간 귀가 서비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김상군 사무처장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

금회에서는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저녁 늦게까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남관내 저소득세대 및 사회복지시설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2019나눔캠페인’을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김종찬 기자



###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경·학 현장실습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재학생들이 최근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2018년 경·학 현장실습’을 했다

이런 실습에 참여한 나아름씨(3년)는 “현장 실습에 참여하기 전에는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강했다”며 “내가 왜 경찰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지가 없었는데, 이번 실습에서 통해 현장 경찰관들의 생생한 체험담과 실무적인 강의를 듣고 또 토론하며,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의 야간 순찰 등의 동행 근무 등을 통해 경찰이 되게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 본보 김태규 기자 올해의 기자상 ‘우수상’

김태규 전남매일 기자가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김효성)가 주는 ‘2018 올해의 기자상’ 신문·통신 사진부문 우수상에 선정됐다.

수상작 ‘고생했다 내 딸’은 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마중 나온 부모가 팔을 벌리고 열사 안으러 달려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대상은 ‘아이들의 절규 스텝미투 학교 밖으로’ (무등일보 이윤주), 신문 통신 취재 분야 최우수상은 ‘GS칼텍스, 위장

업체 일감 몰아주기 410억대 특혜 연속 보도’ (남도일보 윤종재, 기경범, 최연수), 우수상은 ‘장성 땅꺼짐 현상 집중 보도’ (뉴시스 이장우) 등이 선정됐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0일 오후 7시 광주문화재단 별관 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황애란 기자



### 남부대 초등특수교육과 수어경연 대상

남부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동아리 ‘에페’는 최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17회 광주시 사랑의 수어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참가곡은 ‘풍선’, ‘크리스마스니까’, ‘인턴’이며 전달력 있는 안무가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동아리 ‘에페’는 2015년에 결성돼 국내·외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해 교육기부활동을 하고 있다.

‘에페’ 지도교수 박순길 교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과 역량을 키울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 동아리 활동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 무용 주제 문화예술 협력 확대

ACC, 아시아 13개국 무용위원회 회의서 합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13개국 정부와 함께 무용을 주제로 문화예술 교류협력 확대에 나섰다.

최근 ACC에서 열린 아시아무용위원회 회의에서 아시아무용 조사연구 및 교육, 아시아 유망 안무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을 통한 신규 무용콘텐츠 제작 등 무용을 매개로 ACC와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내용이 합의됐다.

위원회는 2015년 아시아무용단을 창단해 매년 현대무용 공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달 6-7일 레퍼토리 공

연 ‘HereThere’와 아시아문화페스티벌 연계 프로젝트 공연 ‘Trace of Time’이 진행되어 성황리에 종료됐다.

아시아무용단 레퍼토리 공연 ‘HereThere’는 작품성을 인정받아 내년 한국의 대표 현대무용축제인 국제현대무용제에 초청되기도 했다.

ACC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무용위원회 회의를 계기 삼아 활발한 정부·민간 네트워크 교류를 통해 무용을 주제로 한 새로운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연계 콘텐츠를 장·제작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연수 기자

###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 전시감독 안재영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선임

안재영 광주교대 미술교육과 교수(51)가 2019청주공예비엔날레 전시감독에 선임됐다.

안 교수는 이탈리아 국립도자예술학교 건축도예과를 졸업하고, 홍익대와 성균관대에서 미술교육(박사)과 예술철학(박사)을 전공했다. 세계 3대 비엔날레로 꼽히는 제33회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의 프로젝트 특별전 큐레이터를 비롯해 2014년과 2016년 방글라데시 비엔날레 커미셔너, 전시감독,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안 교수는 12일 위촉장을 받은 뒤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 주제 및 개요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시감독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는 내년 9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옛 청주 연초제조창 일원에서 열린다. /이연수 기자



### 호남지방통계청 ‘사랑의 연탄나눔’

연탄 1,200장 전달...“공동체 회복 앞장설 것”

호남지방통계청이 저소득 가구를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을 실시했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전남 화순군 등 통계조사 대상처 중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고령으로 소외된 3개 가구에 연탄 1,200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앞서 호남지방통계청은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통계조사 응답자 중 노인·독거가구, 사회적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통계조사와 더불어 생활·행정·교통 지원 등 ‘생활안전 지킴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연탄을 지원받은 류길한 씨는“텅 비어있던 창고가 가득하니 보기만 해도 기쁘다”며 “호남지방통계청 직원들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권순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추운 겨울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수영 기자



### 담양 ‘꿈꾸는 아이들의 스키캠프’ 개최

담양군 드림스타트는 최근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30여 명과 함께 스키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스키캠프는 초등학교 3-6학년 학

생들의 겨울철 스포츠 및 여가활동을 경험, 단체 활동을 통한 사회성 발달을 위해 마련됐으며, 첫날 기초교육을 진행한 후 초급자 코스에서 직접 스키를 경험했다.

/담양=장동원 기자